

1971년 이후 첫 ‘장미대선’…개헌 안되면 5년후엔 ‘꽃샘대선’

50년만의 ‘5월 대선’…역대 대선일 및 당선자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에 따라 그동안 겨울철인 12월에 치러지던 대통령 선거가 봄이 한창인 5월에 치러지게 됐다.

대통령이 공석이 되면 60일 안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 법 규정에 따라 제19대 대선 일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오는 5월9일로 확정됐다. 추위속에 치러졌던 12월 대선이 아닌 장미가 만개한 시기에 치러진다고 해서 이른바 ‘장미 대선’으로 불리고 있다.

대한민국 최초 대통령 선거는 1948년 7월20일 국회의 간접선거로 실시됐다. 첫 직선 대통령 선거는 1952년 제2대 대선으로 한 여름인 8월5일 치러졌다.

그동안 18차례 치러진 대선 가운데 ‘장미 대선’이라고 불릴 만한 봄철 대선은 제3대(1956년 5월15일)와 제6대(1967년 5월3일), 제7대(1971년 4월27일) 등 모두 세

1963년 5대 가을에 치러져

1987년 직선제 이후 12월에

번 실시됐다.

1956년 5월 15일 직선제로 치러진 제3대 선거부터 기산한다면 이번 대선은 네 번째 봄선거로 60년만에 다시 꽃이 피는 계절에 치러지는 셈이다. 특히 봄에 실시됐던 제7대 대선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대중 당시 신민당 후보를 꺾고 3선에 올랐다.

가을인 10월에 치러진 대선도 한 차례 있었다. 1963년 10월15일 제5대 대선은 가을에 실시됐다.

통일주체 국민회의와 대통령 선거인단을 통해 선출하는 ‘체육관 대선’으로 불렸던 제11대(1980년 8월27일)와 제12대(1981년 2월25일) 대선 이후 대통령 직접 선출로

전환된 1987년 제13대 대선부터는 6차례에 걸쳐 한 겨울인 12월 중순에 일정하게 대선이 치러졌다. 이번 제19대 대선은 봄철에 실시되는 ‘장미 대선’이지만, 다음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은 또 바뀌게 된다.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다음 대선은 2월 하순인 꽃샘추위 속에서 치러지는 ‘꽃샘 대선’이 된다.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투표 결과와 나와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다음 대통령 역시 5년 뒤 5월에 취임하게 된다.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라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70일 전에 대선이 치러져야 하기 때문에 대선은 한창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2월 하순쯤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정치권에서 펼쳐지고 있는 개헌이 현실화된다면 다음 대선 일은 또 다시 바뀔 수 있게 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역대 대선 결과

	선거일	당선인	선출방법
초대	1948.07.20(화)	이승만	국회선출
제2대	1952.08.05(화)	이승만	직접선출
제3대	1956.05.15(화)	이승만	“
제4대	1960.03.15(화)	이승만	“
제4대	1960.08.12(금)	윤보선	국회선출
제5대	1963.10.15(화)	박정희	직접선출
제6대	1967.05.03(수)	박정희	“
제7대	1971.04.27(화)	박정희	“
제8대	1972.12.23(토)	박정희	통일주체 국민회의선출
제9대	1978.07.06(목)	박정희	“
제10대	1979.12.06(목)	최규하	“
제11대	1980.08.27(수)	전두환	“
제12대	1981.02.25(수)	전두환	대통령선거 인단선출
제13대	1987.12.16(수)	노태우	직접선출
제14대	1992.12.18(금)	김영삼	“
제15대	1997.12.18(금)	김대중	“
제16대	2002.12.19(목)	노무현	“
제17대	2007.12.19(수)	이명박	“
제18대	2012.12.19(수)	박근혜	“
제19대	2017.5.9(화)	?	“

정당별 경선 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3월12일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4월1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겉으론 ‘국정 공백’ 속내는 ‘승산 없다’ 판단

황교안 대선 불출마 배경

朴 탄핵에도 자유롭지 못해

野대선주자들 “당연한 결정”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 불출마를 결정한 것은 승산이 작아 얻을 것이 없다는 판단을 한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필요한 상황에서 출마로 국정이 흔들릴 경우 쏟아질 비난을 감안한 것이란 해석이다.

황 권한대행은 15일 불출마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의 국가 위기 대처와 안정적 국정 관리를 미루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본인의 대선 출마로 인한 국정 공백 우려를 공식적인 불출마 이유로 밝힌 것이다.

그동안 정치권 안팎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권한대행에서 물러날 경우 국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명분’이 서지 않는다는 지적을 해왔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황 권한대행의 불출마 배경으로 출마할 경우 당선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하차 이후 보수 진영 대선 후보 지지를 조사에서 줄곧 선두를 지켰었지만 전문가들은 황 권한대행이 실제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경우 당선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대선 불출마 표명과 함께 5월 9일을 제19대 대선일로 지정해 공고했다. /연합뉴스

예상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시작된 대선 레이스라는 점에서 야권에 ‘기울어진 운동장’인 데다가, 이번 정부에서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 등 요직을 지낸 황 권한대행으로서는 박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황 권한대행이 정치인이었다면 비록 대선에서 패배더라도 세 확보와 보수진영의 정치지도자라는 정치적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출마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정치에 그다지 마음이 없는 황 권한대행으로서는 패배로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이 출마를 막았을 것으로 해석된다.

황 권한대행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야권 대선주자들은 이날 일제히 “당연한 결정”

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책임이 있는 총리로서 당연한 결정”이라고, 안희정 충남도지사 측은 “탄핵사태에 이른 공동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사죄하는 자세로 국정안정과 선거공정관리 등 권한대행 직무에만 오로지 충실하기 바란다”고 각각 지적했다.

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측은 “황대행은 국정농단과 탄핵 정국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측 김유정 대변인도 “그동안 황대행의 출마설이 가져온 갖가지 소모적 논란과 국민적 분노를 불식시킬 수 있게 되어 불행 중 다행”이라고 각각 논평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가짜뉴스’ 집중단속

경찰청 선거사범 전담반

행자부 지원상황실 운영

정부가 5월 9일로 예정된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도를 가장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이른바 ‘가짜뉴스’ 단속에 힘쓰기로 했다.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가짜뉴스 유포나 흑색선전·금품선거·여론조작 등 주요 선거 범죄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15일 검찰에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이날 밝혔다.

이와함께 행정자치부는 제19대 대선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개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자치부 공무원과 경찰 등 7명으로 구성된 상황실은 앞으로 2개월 동안 선거 상황을 종합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지원하게 된다.

경찰청은 15일 본청과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252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선거일까지 일정이 촉박하고, 정치세력 간 갈등으로 후보자 등을 상대로 한 폭행·협박과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오랫만에 제 역할을 법, 불의를 벌하다



(179) 법

검사출신 변호사가 했다는 말이 떠오른다. “검사 시절에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밟더니만, 변호사 개업을 하고보니 법 안 지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뻐더라”고. 설마 예쁘기까지 했겠는가하는 법을 대하는 우리 사회 이중적 태도가 드러나는 한 예가 아닌가 싶다.

지난 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보면서 법의 이성과 논리에 감탄했다. 때로 ‘권력의 시녀’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보여주기도 했던 법이 사회 질서의 근간인 ‘최후의 보루’로서 다시 등극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법 문외한인 우리에게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인 헌법과 법치주의의 가치를 새길 수 있게 했던 점도 의미 있었던 것 같다.

오늘 우리 사회처럼 극심한 정치적 혼란기였던 19세기 프랑스를 날카로운 비판 정신으로 투영해냈던 오노레 도미에(1808~1879)는 부패한 권력층이나 부조리한 사회현상을 묘사했고 특히 사법 풍자화가로 명성을 날렸다. 작품 ‘형사 소송’(1865년 경)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를 풍자한 그림이다. 무슨 죄를 지었을까? 함악한 인상의 피고인이 몸을 숙여 자신의 변호사와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변호사는 원손



에 증거자료를 쥐고 있고 그 옆에는 한 묶음 증거물이 놓여있는 것이 승소를 자신하고 있는 분위기다. 판결이 공급해지는 장면이다.

도미에는 당시 변호사를 프랑스 중산층의 상징으로 권력층이나 부자들이 부와 권력을 안심하고 누릴 수 있도록 봉사하는 데만 몰두했던 점을 신랄하게 풍자했다. 눈물로써 의뢰인의 무죄를 호소하는 그림 ‘여인을 변호하는 변호사’와 ‘유명한 소송’ ‘집단하는 세 변호사’ 등도 유명하다.

무명 시인인 부친 대신 생계를 꾸려야했던 도미에는 16세부터 법원 집행관 밑에서 사환으로 일했던 경험 덕분에 법률가들을 인상적으로 그릴 수 있었던 것 같다. 화가 조카가 석판화가 작품 ‘형사 소송’(1865년 경)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를 풍자한 그림이다. 무슨 죄를 지었을까? 함악한 인상의 피고인이 몸을 숙여 자신의 변호사와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변호사는 원손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 · 정행진 · 임정승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